

Korean

당신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섬김

Christ's Precious Ministry for Your Salvation



JOY CHURCH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기독교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며,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후의 부활에 관련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 사건이 당신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큰 후회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도움과 죄 사함, 그리고 변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조금 전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듯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계속 섬기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섬김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섬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음 뒤에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죽은 뒤에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반드시 죽지만,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즉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벌을 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에게는 용서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죽음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5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지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약속되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300 가지 이상의 예고가 모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참된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전하는 역사의 기록이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 그 자체를 창조하고 계신 분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 신비로운 역사의 사실에 마음을 두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원을 위한 현명한 선택

'팡세'의 저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수학이나 물리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이지만, 사실 매우 열성적인 크리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특기인 수학(확률론)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죽은 뒤에 정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됩니다. 반대로 믿고 살았다면, 설령 하나님의 계시지 않았더라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선택은 말하자면 50%의 확률로 인생을 도박에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도박을 하기보다,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갓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기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31 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구원을 보았으니(30 절)" "평안히 놓아 주소서 (29 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주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구원을 보고 구원을 얻은 뒤에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죽지 마시고(웃음), 무관심해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악마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사후 세계도 없다", "지금 이대로 가 좋다"라고요. 그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마는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 오히려 당신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인간의 힘(선한 행위 등)에 의한 불가능한 구원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면 "인간이 신을 위해 노력이나 선행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바르게 살기는 어려우며, 어떻게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바르게 살 수는 없으며, 오히려 죄를 쌓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한 구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역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이 그 목숨을 걸고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신하는 사랑'에 의해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믿는 것만으로 '확실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놀랍게도 위의 8 절 마지막에는 구원이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무상 선물입니다. 만약 행위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된다면, 우리는 구원보다 형벌에 가까운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확실한 구원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구원에도 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은 선한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죄나 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라는 문제를 그리스도께

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신하는 희생'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 들인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시며 앞으로의 인생을 계속 지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걸음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구원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얻었듯이, 당신도 이 구세주를 만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안이 가득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싶으시다면, 부디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예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야말로 내 인생의 파괴와 멸망의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부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능력으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귀한 섬김

2025년 12월

저자 강석재 (姜錫在)

JOY CHURCH 목사

발행 일본 국제 선교회 (ENM)

우편번호 812-0053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코엔 4-5 (JOY
CHURCH)

Tel : 092(643)5534 Fax : 092(643)5536

E-mail : joyskan@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joychurch.jp> [<http://www.joychurch.jp>]